

# 석불 앞에 서면 올 것 같지 않은 그 시간이 또 흐른다



⑥ 논산 관촉사(灌燭寺)



하얀 벚꽃이 반야산 기슭을 밝히고 있다. 일주문을 지나면 도랑으로 오르는 돌계단이 오선지의 악보처럼 중간 중간 마디를 두고 숨을 고르게 했다. 마디마다 드리운 봄꽃의 그림자를 밟으며 돌계단을 오르면 영원보다 긴 시간 앞에 서있는 미륵보살님이 중생을 기다리고 있다. 관촉사다.

관촉사는 968년(광종 19)에 혜명(慧明) 스님이 불사를 시작하여 1006년에 낙성했다. 1581년(선조 14) 백지(白只) 스님이, 1674년(현종 15)에는 지능(知能) 스님이 중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마당에는 높이가 18m에 이르는 거대한 석조 미륵보살상(보물 제218호)을 비롯해 석등과 배례석 그리고 삼층석탑 등 신라의 불교미술과는 전혀 다른 고려 불교미술 작품들이 도랑을 채우고 있다. 특히 석조 미륵보살상은 신라의 불교미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롭고 파격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불상으로서, 보는 이는 그 거대한 모습에 압도당한다. 그 거대함에 압도되고 나면 미륵불이 지닌 어마어마한 시간 앞에 또 한 번 압도당한다. '56억 7천 만년' 미륵불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다. 그 때까지도 제도되지 못한 중생이 있다면 그 때 사바로 오시겠다고 했다.

미륵보살님 어깨 위로 꽃비가 내렸다. 멀리서 보았던 벚꽃들이 봄바람에 꽃잎을 날리고 있다. 나뭇가지가 봄비에 젖고, 봄바람이 젖은 나뭇가지를 말리고, 그 마른 가지에 봄벌이 내려와 꽃잎을 띄우더니 그 꽃잎들이 다시 봄비에 젖고, 다시 봄바람을 맞으며 그 벌 아래서 지고 있었다. 시간은 그렇게 가고 있었다. 영원보다 긴 56억 7천만년은 그렇게 다가오고 있었다. 피는 꽃잎을 바라보고, 지는 꽃비를 맞으며 미륵보살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봄비가 지나갔다. 청솔모와 까치가 한가롭게 숲을 거닐고, 도랑은 봄비에 젖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득한 시절로부터 시작된 미륵불은 아니었을까. 그 아득한 시간, 올 것 같지 않은 그 시간이 이미 2000년 전에 지나갔고, 또 다시 아득한 시간은 아득한 시간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숲을 거닐던 청솔모가 빛나무 가지를 흔들어 꽃잎을 떨어뜨리고, 청솔모를 바라보던 까치는 미륵보살님 어깨에 날아와 앉았다.

잠 못 이룬 지난밤이 길었다면 오늘 관촉사에 가볼 일이다. 꽃비 속에 서있는 미륵보살님 앞에 서볼 일이다. 영원보다도 긴 그 시간 앞에 서볼 일이다. 길기만 했던 지난밤이 오늘 밤 또 올 것이기 때문이다. 보살님 어깨 위로 꽃비가 또 내리고 까치는 숲으로 돌아갔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天氣福

**화제의 신간**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약삭빠르게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베트밀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